

Customs Focus

이주의
초점

관세·무역
NEWS

개정
법령

민원
사례

기타



연락처 : 02) 516 - 1237
 주 소 :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 13길 33 (성수동 2가 6층)

contents



01
이주의 초점



02
관세 무역 NEWS



03
개정 법령



04
민원 사례



05
기타

contents



이주의 초점

1. “日 수출규제부터 코로나19까지” 명(明)·암(暗) 엇갈리는 우리 수출품목

2. “달라지는 하반기 관세행정, 다시 한 번 체크하세요”

3. 美, 한국産 풍력타워에 5.41% 반덤핑관세 부과 결정

4. 상반기 교역 성적표, FTA 체결국 199억\$ 흑자 ... 非발효국 92억\$ 적자

5.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량 15% 내 수출 허용

6. ‘브렉시트 이행기간 D-5개월’ 對英 수출 시 직접운송원칙 위배 여부 따져봐야

7. 600억 달러 규모 ‘한·미 통화스와프’ 6개월 연장 ... “안전판 역할 기대”



관세·무역 NEWS



개정법령

8.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9.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10.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민원사례

11. 한·ASEAN FTA C/O의 수출자 범위관련 질의

12. 목록 통관된 물품의 재수입신고 관련 질의



기타

13. 미국 CBP(세관) 홍콩에 대한 조치 및 홍콩의 반응

Cover

“日 수출규제부터 코로나19까지” 명(明)·암(暗) 엇갈리는 우리 수출품목 - I

이주의
초점

日 수출규제 1년, 우리 반도체는 호황 '전화위복'

지난해 7월 일본정부는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관리 등을 이유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의 수출절차를 강화했다. 당시 반도체 업계에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1년이 지난 현재 일부 소재의 국산화로 반도체 공급망이 안정되고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보다 우리 수출에 영향을 미친 것은 코로나19 확산이었다. 코로나19 위기가 본격화된 4월, 우리 수출은 -25.5%까지 떨어졌고, 5월(-23.7%)과 6월(-10.9%) 모두 수출이 두 자릿수 대로 감소했다.

다만 4월 이후부터 수출 감소율이 꾸준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 7월에는 4개월 만에 한 자릿수 대에 진입했다.

관세·무역
NEWS

◆ 7월 수출, 코로나19 이후 가장 많은 품목 증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7월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7% 줄어든 428억 3,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개정
법령

3월 이후 5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간 것이지만 감소율은 4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4월과 5월에는 20% 넘게 수출이 줄었고, 6월에도 -10% 대로 두 자릿수 감소율을 보였다.

민원
사례

기타

Cover

“日 수출규제부터 코로나19까지” 명(明)·암(暗) 엇갈리는 우리 수출품목 - II

이주의
초점

품목별로는 반도체(5.6%) 무선통신기기(4.5%) 가전(6.2%) 등의 수출이 지난달 반등한 것을 포함해 15대 주요 품목 중 6개 품목이 증가하며, 코로나19 이후 가장 많은 품목이 증가로 전환했다.

코로나19 이후 증가 품목은 4개가 최대였으나, 지난달에는 6개 품목이 증가하며 코로나19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했다.

대다수의 감소 품목들도 코로나19 영향에서 점차 회복 중이다.

관세·무역
NEWS

특히 5월 54%까지 감소하며, 최근 부진이 지속됐던 자동차는 미국과 EU로의 수출 호조로 한 자릿수대 감소율(-4.2%)에 진입했다.

반도체의 경우 수출액 78억 8,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2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올해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0.3%차이로 코로나19 여파에도 꾸준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개정
법령

◆ 日 수출규제 1년, 국산화로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

민원
사례

이와 관련해 최근 일본 기업 자산의 청산절차가 시작되면서 한·일 갈등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보복을 예고하면서 양국의 경제적 부담 역시 커졌다는 평가가 나왔는데, 그럼에도 우리나라보다는 일본의 경제적 손해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기타

이주의
초점

애초 일본의 의도와는 다르게 우리 반도체 산업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었던 한국의 반도체 부문은 현재까지 아무런 타격을 입지 않았다”며, “이는 반도체 생산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불화수소가 수출 규제대상에 포함되면서 한국 기업들이 주로 중국과 대만에서 대체 공급품을 모색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관세·무역
NEWS

우리 정부는 對日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7년간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에 매년 1조원 이상씩 총 7조 8,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을 세웠으며, 소재·부품·장비 필수관리 품목도 기존 100개에서 338개로 늘렸다.

개정
법령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한국 정부의 정책이 중·장기적으로는 수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계획이 실현되기까지 매우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다”며, “한국이 소재·부품·장비 부문의 개발을 가속화하면서 일본은 더욱 큰 경쟁에 직면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 韓 기업 84%, “日 수출규제 피해 없다”

민원
사례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소재·부품산업보다는 다른 산업에 더 큰 영향을 주면서, 우리 경제의 對日 수입의존도가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기타

Cover

“日 수출규제부터 코로나19까지” 명(明)·암(暗) 엇갈리는 우리 수출품목 - IV

이주의
초점

대한상공회의소가 7월 26일 발표한 ‘일본 수출규제 1년 산업계 영향과 정책과제’에 따르면, 지난해 분기별 소재·부품의 對日 수입비중은 15.7%(2019년 1분기) → 15.2%(2분기) → 16.3%(3분기) → 16.0%(4분기)로 지난해 7월 수출규제 이후 오히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 對日 수입비중은 9.8%(2019년 1분기) → 9.5%(2분기) → 9.5%(3분기) → 9.0%(4분기) 하향곡선을 그렸다.

관세·무역
NEWS

규제대상으로 삼은 소재부품보다는 여타 산업에서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처럼 對日 의존도 하락 등의 영향으로 우리 기업들은 일본 수출규제의 직접적인 영향에서 빚겨간 것으로 조사됐다.

개정
법령

대한상의와 KOTRA가 6월 15~30일까지 일본과 거래하는 기업 302개社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84%의 기업이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가 없었다’고 응답했다.

이어 일본 수출규제가 기업 경쟁력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91%가 ‘큰 영향은 없었다’고 답했다.

민원
사례

대한상의 관계자는 “일본 수출규제로 산업계 피해가 제한적이지만, 강제징용 배상판결 결과 관련 한·일 갈등이 여전해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추가 리스크 점검, ▲민간협력 지속, ▲소재·부품·장비 정책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CUSTRA

기타

Cover “달라지는 하반기 관세행정, 다시 한 번 체크하세요” - I

이주의
초점

‘중소기업 자율관리 보세공장 제도 신설’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 제출’까지 관세청, ‘2020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자료집 발간

관세청은 국민과 수출입기업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 제도 및 법규사항을 정리한 ‘2020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자료집을 7월 24일 발표했다.

올 7월 21일엔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 제도를 신설했으며, 8월 1일엔 유통이력 관리대상 물품을 32개에서 26개로 축소했다. 또 오는 10월부터는 전자상거래 물품 목록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이번 호에서는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관세·무역 관련 제도를 소개한다(일부 既 시행 중 제도 포함).

◆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 제도 신설(시행일 : 2020년 7월 21일)

먼저 중소 수출기업이 세관의 관리 부담을 덜고 쉽고 편리하게 보세가공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허요건 완화 및 세관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한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 특허 및 특례규정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보세공장 특허 심사 시 중소 수출기업이 특허요건 중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조건부 특허를 허용하고, 장외작업 신청 등 세관 주요 신고절차를 사전 건별 신고에서 포괄신고 또는 사후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관세·무역
NEWS개정
법령민원
사례

기타

Cover “달라지는 하반기 관세행정, 다시 한 번 체크하세요” - II

이주의
초점

한편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은 특례 적용사항을 자체 기록·유지해야 하며, 매월 또는 분기 단위로 세관장에게 운영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현재 설치·운영 중인 보세공장이 특례 적용을 희망하는 경우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으로의 전환도 허용한다.

◆ 전자상거래 수출플랫폼 도입·운영 근거 규정 신설(시행일 : 2020년 9월 中)

전자상거래 수출을 빠르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수출 플랫폼이 오는 9월 도입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전자상거래업체가 소액 전자상거래 물품을 세관에 통관목록 제출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화주의 수출실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관세 환급에도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전자상거래 수출 플랫폼과 연계된 운송사를 통해 배송내역이 자동으로 수출신고로 변환되고 별도 증빙서류 없이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게 된다.

◆ 전자상거래 물품 목록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 제출(시행일 : 2020년 10월 中)

오는 10월부터 전자상거래 물품 목록통관 시 생년월일이 아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해야 한다.

그동안 특송업체가 화주의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해 목록통관으로 수입신고하는 경우 통관목록상 ‘수화인 식별부호’를 화주의 개인통관 고유부호 또는 생년월일을 선택해 기재할 수 있었다.

기타

Cover

“달라지는 하반기 관세행정, 다시 한 번 체크하세요” - III

이주의
초점

하지만 올 10월부터는 성실 신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실명 검증이 용이한 개인통관고유부호만 기재해야 한다(「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예정).

다만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기재할 수 있다.

참고로 목록통관은 개인이 자가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發 200달러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돼 관세 등이 부과되지 않는 제도다.

◆ 유통이력 관리대상 물품 조정(시행일 : 2020년 8월 1일)

기존 수산물과 농산물, 공산품 분야의 32개 유통이력 관리대상 물품을 26개로 축소하고, 이 중 수산물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따라 10월부터 유통이력 관리업무를 관세청에서 해양수산부로 이관한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를 8월 1일 개정하고, 같은 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민원
사례

구체적으로 냉동 조기·꽂치·꽃게, 냉장 명태·갈치·홍어, 향어, 활낙지, 미꾸라지 등을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으로 재지정했으며, 7월 31일 지정이 만료된 식품용 당귀·지황·천궁·사탕무당·작약, 에이치(H) 형강 등 6개 물품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기타

Cover

“달라지는 하반기 관세행정, 다시 한 번 체크하세요” - IV

이주의
초점

참고로 유통이력관리 제도는 관세청장이 유통이력 신고대상으로 지정하는 물품을 수입·양도한 자가 해당 물품의 국내 유통 거래내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국민 건강 및 사회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입자, 유통업자, 최종 판매자까지 통관·유통내역 및 경로를 추적·관리하는 제도다.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또는 본지 통권 제1900호(2020.7.27.) 최신개정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세·무역
NEWS개정
법령민원
사례

기타

출처 - CUSTRA

Cover 美, 한국産 풍력타워에 5.41% 반덤핑관세 부과 결정 - I

미국정부가 한국産 풍력타워에 5.41%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주의
초점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7월 31일 한국産을 포함해 캐나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에서 수입하는 풍력타워에 반덤핑관세 부과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참고로 풍력타워는 풍력발전기의 기능부를 지탱하거나 일정 높이로 위치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는 구조물이다.

美 상무부는 올 6월 동국S&C 등 우리 기업으로부터 수입하는 풍력타워에 5.41%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예비 판정(5.98%) 보다는 관세율이 낮아졌다.

캐나다와 인도네시아는 각각 4.49%, 8.53%로 결정했다. 베트남産에는 65.96%로 가장 높은 관세를 부과했다.

美 상무부의 결정은 ITC에서 미국 산업계의 피해를 최종적으로 인정하면 실제로 집행된다.

이번 ITC의 판정에 따라 美 상무부는 7일 이내 반덤핑관세 부과를 명령할 예정이다.

최종 판정 당시 美 상무부는 “반덤핑 조사 과정 중 한국産 풍력타워의 수출이 급증해 ‘긴급상황(Critical Circumstances)’을 적용해야 한다”며, 예비 판정 90일 전부터 수입한 품목에 대해 5.41%의 관세를 소급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관세·무역
NEWS개정
법령민원
사례

기타

Cover

美, 한국産 풍력타워에 5.41% 반덤핑관세 부과 결정 - II

이주의
초점

반덤핑 청원 이후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기 전 '수출 밀어내기'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ITC는 긴급상황에 대한 근거가 미약하다고 보고 소급 적용은 제외한다고 판정했다.

한국産 풍력타워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조사는 지난해 7월 현지 풍력타워 제조업체들로 구성된 풍력타워무역연합(WTTC)의 청원에 따라 시작됐다.

당시 WTTC는 한국을 비롯해 캐나다·인도네시아·베트남産 풍력타워의 수출가격이 지나치게 낮아 자국 기업에 피해를 준다고 주장하면서 한국産 제품에 대해 350.62~422.87%의 높은 반덤핑관세를 부과해달라고 요구했다.

개정
법령

美 상무부와 KOTRA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한국産 풍력타워 수입액은 7,870만 달러로 2018년 5,000만 달러보다 약 57% 증가했다. 2017년(600만 달러)에 비하면 무려 13배 늘었다.

민원
사례

출처 - CUSTRA

기타

Cover

상반기 교역 성적표, FTA 체결국 199억\$ 흑자 ... 非발효국 92억\$ 적자 - I

이주의
초점

관세청, '2020년 상반기 FTA 활용 수출입·교역 동향' 발표

코로나19 속 녹록지 않은 교역 환경에서도 우리나라는 올 상반기 FTA 체결국과의 교역에서 199억 달러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FTA 非발효국과는 92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관세·무역
NEWS

관세청은 7월 30일 발표한 '2020년 상반기 FTA 활용 수출입·교역 동향'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는 올 상반기 FTA 체결국과의 교역에서 199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수출입 전체 교역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1% 줄었는데, FTA 체결국과의 교역은 6.8% 감소에 그친 반면, 非발효국과의 교역은 17.4%나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개정
법령

관세청은 코로나19로 교역이 침체한 상황에서 FTA가 교역규모와 무역흑자 유지에 완충작용을 했다고 설명했다.

민원
사례

또한 對세계 수출입이 전년 동기대비 각각 11.3%, 8.8% 큰 폭으로 감소한데 반해, 중국·미국 등 우리나라의 주요 FTA 체결국과의 수출입 교역 감소폭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전년 동기대비 수출 감소폭이 가장 큰 EU(-11.8%)를 제외한 나머지 주요 국가와의 무역수지는 흑자를 기록했으며, 이 중 ASEAN과의 무역흑자가 153억 달러로 가장 많았다.

기타

Cover

상반기 교역 성적표, FTA 체결국 199억\$ 흑자 ... 非발효국 92억\$ 적자 - II

주요 산업의 FTA 수출활용률은 화학공업제품이 2.2%p 증가했고, 수입활용률은 기계류 분야의 급증(10.4%p)이 눈에 띄었다.

이주의
초점

이에 대해 관세청은 FTA 활용률이 높고 교역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자동차의 수입 증가(20.9%, 43억 달러 → 52억 달러)가 기계류의 FTA 수입활용률 상승을 이끌었다고 덧붙였다.

관세·무역
NEWS

한편 협정별 FTA 수출활용률은 ▲캐나다(95.0%), ▲EU(86.7%), ▲EFTA(85.8%), ▲미국(84.2%) 순이었으며, 수입활용률은 ▲칠레(99.5%), ▲뉴질랜드(94.4%), ▲베트남(86.7%), ▲호주(84.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관세청 FTA집행기획담당관실 김태영 과장은 “FTA 활용률이 FTA 활용 지원전략 수립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수출입기업의 FTA 활용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

자세한 내용은 'YES FTA 포털'(www.customs.go.kr/ftaportalko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원
사례

출처 - CUSTRA

기타

Cover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량 15% 내 수출 허용 - I

이주의
초점

비말 차단용 마스크 필터도 긴급수급조정 대상에 포함

여름철 수요가 급증한 비말 차단용 마스크 필터도 생산량과 출고량 등을 제한하는 긴급수급조정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원칙적으로 금지하던 마스크 필터 부직포의 수출도 생산량의 최대 15% 내에서 허용하기로 했다.

관세·무역
NEWS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하고 8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으로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정의에 멜트블로운(MB) 외에도 멜트블로운과 스펀본드(SB)를 결합한 복합부직포(SMS)가 추가됐다.

개정
법령

복합부직포는 주로 비말 차단용 마스크 필터로 사용되며, 통기성이 좋고 호흡이 상대적으로 편해 여름철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도레이SMS 필터'를 수급관리 대상으로 명확히 포함했다.

민원
사례

또 국내 부직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금지하던 수출은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생산업체별로 직전 2개월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량의 15% 내에서 수출할 수 있다.

기타

Cover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량 15% 내 수출 허용 - II

이주의
초점

국내 수급이 부족한 수술용 마스크 MB의 생산·수급 안정에 일조한 경우에는 초과 수출이 가능하다.

다만 국내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와 마스크의 수급·가격·재고 상황 등을 고려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를 통해 수출량을 조정해 결정한다.

유통업체를 통한 무분별한 수출을 막기 위해 수출 주체를 생산업자나 생산업자와 계약한 수출대행자로 한정했다.

이 외에도 수기로 매일 작성해 제출하던 신고절차를 전자시스템 등록으로 간소화했다.

이에 주말이나 공휴일 신고를 다음 영업일에 신고할 수 있어 업체들의 불편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고시는 8월 6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5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재유행이 우려됨에 따라 마스크와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수급 안정을 위해 신규 고시 시행에 유관기관 및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이,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수급동향 등의 상황을 고려해 안정적인 마스크 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개정
법령민원
사례

기타

출처 - CUSTRA

Cover

'브렉시트 이행기간 D-5개월' 對英 수출 시 직접운송원칙 위배 여부 따져봐야 - I

무역협회, '5개월 남은 브렉시트 이행기간, 우리 기업의 체크포인트는?' 보고서 발표

이주의
초점

브렉시트 이행기간 종료가 올 12월 31일로 확정되면서 우리 기업이 영국과 유럽연합(EU) 간 무역관계 전환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행기간 중엔 양측이 현재의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협정, 안보, 외교 등 미래관계 협상을 진행한다.

관세·무역
NEWS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7월 27일 발표한 브렉시트 이행기간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과 EU 정상은 브렉시트 이행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올 12월 31일까지 미래관계 협상을 타결하기로 최종 합의하면서 영국은 내년 1월 1일부터 한·EU FTA 적용 대상국에서 제외된다.

개정
법령

이 보고서는 "다행히 한·EU FTA 종료 직후 올 8월 22일 정식 서명한 한·영 FTA가 발효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영국 간 교역은 한·EU FTA 수준의 특혜관세가 계속 적용된다"면서도 "영국과 EU가 역외무역 관계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먼저 EU를 경유해 영국으로 수출하거나 영국을 경유해 EU로 수출하는 제품은 직접운송원칙에 위배돼 FTA 특혜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같은 상품을 EU와 영국에 동시에 수출하더라도 지역별로 따로 포장해 발송해야 한다.

민원
사례

다만 한·영 FTA에서는 FTA 특혜관세 인정 범위를 EU 경유 수출까지 3년 간 한시적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추후 구체적인 지침에 따라 EU 경유 수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기타

【 이행기간 종료 후 우리 수출기업이 대비해야 할 Check-Point 】

구분	변화 내용
관세 및 FT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 직수출) 한·영 FTA로 전환됨에 따라 발생하는 행정적 검토사항 체크 - (영국 경유 EU 수출) 단일 탁송화물 단순환적 · 일시 보관 외의 경유 수출은 EU 역외 대외 관세율 적용 - (EU 경유 영국 수출) 한·영 FTA는 단일 탁송화물 뿐만 아니라 일부 경유 수출의 한·영 FTA 특혜관세가 3년 간 한시적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지침은 아직 공개되지 않음. - (EU 현지공장에서 영국 수출) 영국·EU 간 무역협정 내용에 따라 현지 공장 생산 제품의 EU 원산지 인정 및 특혜관세율 수준 결정 (EU 원산지 인정을 위해 한국産 부분품 중 일부를 EU 역내産으로 전환 필요)
운송/통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EU 간 역외통관 절차 부활로 한국 수출품의 통관 지연 가능성 대비 - EU와 영국에 동시 수출 시 경유국에서의 분할 선적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개별 포장해 발송
무역구제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반덤핑 품목은 영국 승계 예정 - 28개 철강 품목 대상 EU 세이프가드의 영국 승계 여부는 미결정

구분	변화 내용
규제/시험/인증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행기간 종료 후 EU와 영국에 각각 별도의 규제와 법률 체계가 적용됨. - 인증 및 시험기관의 소재국에 따라 기존 인증과 증명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음. - EU 및 영국 정부 홈페이지에서 이행기간 종료 이후 세부 변경사항 체크
對EU·영국 수입품의 FTA 원산지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수입품이 對EU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았더라도 이행기간 종료 후에는 영국産 부분품과 EU産 부분품의 포함 비율에 따라 한·EU FTA 또는 한·영 FTA상 특혜원산지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 현재 수입상품의 영국産 및 EU産 부분품 비율을 확인해 FTA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재검토

Cover

600억 달러 규모 '한·미 통화스와프' 6개월 연장 ... "안전판 역할 기대" - I

이주의
초점

한은, 코로나19 불확실성 커 ... 내년 3월 31일까지 계약 지속

우리나라와 미국이 체결한 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이 6개월 더 연장됐다. 코로나19로 침체했던 금융·외환시장이 최근 안정세를 찾고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장이 충격을 받으면 언제든지 자금유출 등의 위기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세·무역
NEWS

한국은행은 올 3월 美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 연준)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체결한 통화스와프 계약을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7월 30일 밝혔다.

통화스와프는 경제·금융위기 시 자국통화를 상대국에 빌려주는 외환거래로, 자본유출 위기의 '안전판' 역할을 한다.

개정
법령

이번 합의로 양국 간 통화스와프 계약기간은 올 9월 30일에서 내년 3월 31일까지로 늘어났으며, 규모와 조건은 기존과 동일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처음 체결한 한·미 통화스와프 계약기간도 6개월로 합의한 뒤 두 차례 더 연장한 바 있다.

민원
사례

한은은 올 3월 19일 美 연준과의 통화스와프 계약 체결을 발표한 뒤 3월 31일부터 경쟁입찰 방식의 외화대출을 통해 금융기관에 달러 자금을 공급해왔다. 5월 6일까지 총 6차례의 경쟁입찰을 통해 공급한 한·미 통화스와프 자금은 모두 198억 7,200만 달러다.

기타

Cover

600억 달러 규모 '한·미 통화스와프' 6개월 연장 ... "안전판 역할 기대" - II

이주의
초점

한·미 통화스와프 자금 공급 후엔 환율 변동성이 줄고, 국내 외화유동성 사정도 개선되는 등 국내 외환부문이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체결 발표만으로 달러화 자금 조달에 대한 불안감이 줄어 주가가 반등하고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등 국내 금융시장이 즉시 반응한 바 있다.

관세·무역
NEWS

한은 관계자는 "이번 만기 연장 조치는 국내 외환시장 및 금융시장 안정 유지에 일조할 것"이라며, "앞으로 국내 외화자금시장 동향을 고려해 필요시 美 연준과의 통화스와프 자금을 활용해 경쟁입찰 방식의 외화 대출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美 연준은 같은 날 우리나라 외에도 올 3월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호주, 뉴질랜드, 브라질, 멕시코 중앙은행과 싱가포르 통화청과의 계약도 6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개정
법령민원
사례

기타

출처 - CUSTRA

Cover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기획재정부령 제803호, 2020. 7. 30., 일부개정]

이주의
초점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인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중 동작제어기, 회로망분석기 등을 제외하고, 로울기, 배기가스 입자 포집기, 조사(照射)기 등을 추가하여 총 70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관세·무역
NEWS

개정
법령

민원
사례

출처 - 기획재정부

기타

Cover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20-4호, 2020.2.1.]

이주의
초점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7.31. 지정기간 만료 품목 재지정에 따른 별표1 수정

○ 유통이력대상물품 24개 재지정(고시 별표 1)

- 냉동조기, 향어, 활낙지, 미꾸라지, 냉장명태, 가리비, 돔, 냉동꽂치, 천일염(식용), 냉동꽃게, 염장새우, 냉장갈치, 활우렁쉥이, 냉장홍어, 활먹장어, 활방어, 건고추, 김치, 팥, 콩(대두), 참깨분, 땅콩, 도라지, 황기 : 지정기간 2020.8.1. ~ 2021.7.31.(1년)

○ 수산물 16개 품목(냉동조기, 향어, 활낙지, 미꾸라지, 냉장명태, 가리비, 돔, 냉동꽂치, 식용 천일염, 냉동꽃게, 염장새우, 냉장갈치, 활우렁쉥이, 냉장홍어, 활먹장어, 활방어)에 대한 유통이력 관리는 2020년 8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수입신고분은 관세청장이 하고, 2020년 10월 1일 수입신고분부터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함

관세·무역
NEWS개정
법령민원
사례

기타

출처 - CUSTRA

Cover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총리령 제1633호, 2020. 7. 31., 일부개정]

이주의
초점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해물질의 검출로 부적합 처분을 받은 수입식품등의 해외제조업소에 대해서는 그 부적합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모든 수입식품등에 대해 정밀검사를 받도록 그 검사기간을 명확히 하고, 주류의 경우에는 그 제품명에 포함된 제조연도 또는 숙성연도 등이 다른 때에도 같은 제품명으로 보아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며, 수입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등이 「식품위생법」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반되는 경우 그 행정처분기준을 해당 법령상의 행정처분기준과 동등한 수준으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관세·무역
NEWS

개정
법령

민원
사례

출처 - 법제처

기타

Cover

한·ASEAN FTA C/O의 수출자 범위관련 질의

이주의
초점

□ (질의)

∴ 완제품을 공급받아 자사 명의로 수출신고하고 있는데, 실제 수출 진행은 국내 수출 총판인 B업체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B社の 명의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세·무역
NEWS

□ (답변)

∴ FTA 거래 당사자의 수출자는 보편적으로 '상품이 수출되는 당사국 영역에 소재하면서 그 상품을 수출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며, 원산지 증명서 발급 또는 발급 신청의 주체로서 관련 자료의 보관의무를 부담하고, 세관당국이 그 진정성에 대한 검증을 수행할 때 피검증자로서 자료 제출 의무를 지는 자'를 의미합니다.

개정
법령

∴ 한·ASEAN FTA에서 '수출자'란 '상품이 수출되는 당사국의 영역 안에 소재하면서 그 상품을 수출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수출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하므로 수출 총판 명의로 원산지증명서 발급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민원
사례

∴ 다만 국내 수입 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중국 무역업 구조상 문제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관련 업무 처리 지침(부득이한 경우 수출대행자 병기 허용)에 따라 실제 수출자와 수출대행자 병기에 한해 협정세율 적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출처 - CUSTRA

기타

Cover

목록통관된 물품의 재수입신고 관련 질의

이주의
초점

□ (질의)

∴ 자가사용 목적으로 입고된 물품을 사용하지 않고, 판매 목적으로 재신고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 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는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세·무역
NEWS

∴ 동 고시에 따라 목록통관 또는 현장 면세돼 반출된 특송물품 및 우편물 중 물품 반출일로부터 30일 이내(예외적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연장 가능)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재반입 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직접 휴대해 반입 완료된 물품은 제외).

개정
법령

∴ 이때 물품 확인을 위해 통관지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재반입 후 개·포장 여부, 물품의 서상 등 직접 현품을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며, 영상 자료(digital) 또는 세관 서류 등에 의해 세관장이 동일 물품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민원
사례

∴ 또한 일부 물품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요건 확인을 취득해야 합니다.

∴ 재반입 수입신고 가능 여부는 통관지 세관장이 사유서 및 통관 서류 등 해당 물품 증빙자료를 검토해 판단할 사안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관할 세관 담당 부서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출처 - CUSTRA

기타

Cover 미국 CBP(세관) 홍콩에 대한 조치 및 홍콩의 반응 - I

□ 중국청년망 (2020. 8. 12)

이주의
초점

미국정부는 홍콩에서 제조된 상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반드시 '중국제조(made in China)'로 표기해야 하면 '홍콩제조(made in Hongkong)'을 쓸 수 없도록 공고하였음.

관세·무역
NEWS

미국 CBP(관세국경보호청)은 8. 11일 연방공보홈페이지에 홍콩관련 원산지표기에 관한 규정을 공고하였고, 홍콩정부는 이에 강렬히 항의하였음.

개정
법령

미국정부는 오는 9월 25일부터, 홍콩에서 생산된 상품을 미국으로 수출시 '홍콩'대신 '중국'을 사용토록 요구하였음. 현재 홍콩특구에 대한 '일국 양제(一国两制)'로서 관세상 지위 및 WTO회원국으로서 홍콩산 상품의 미국 수출시 원산지는 '홍콩'으로 표기하고 있음.

홍콩 무역발전국의 통계에 따르면, 2019년 미국 수출에 홍콩산 상품은 4.71억\$로서 홍콩의 전체 미국 수출액의 0.1%를 차지함.

민원
사례

현재 홍콩에서 수출된 상품중에는 1%만이 홍콩에서 생산됨. 홍콩은 그 동안 중국대륙에서 생산된 상품의 물류기지 역할을 주로 해왔음.

또한 교역금액으로 볼 때, 2019년 상반기에 미국으로 수출된 홍콩산 상품으로는 보석류가 48.5%, 식용품이 10.7%를 차지함.

기타

Cover

미국 CBP(세관) 홍콩에 대한 조치 및 홍콩의 반응 - II

이주의
초점

미국의 이번조치에 대해 홍콩 경제전문가들은 '거시적으로 볼 때 안 좋은 현상임에는 맞지만, 실제적으로 큰 의의는 없다면서 금액 측면에서 큰 영향이 없다'고 보고 있음.

홍콩특별행정구는 '일국양제'에 따른 독립된 관세지역으로의 지위는 중국 헌법 및 홍콩 기본법에 근거하며, WTO 등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제도라면서, 개별국가가 임의로 취소할 수 없다'고 발표함.

관세·무역
NEWS

홍콩정부는 업계관계자들과 소통하면서 미국의 조치가 WTO규정위반내역이 있는지 상세히 연구하여 필요하면 WTO에 제소하는 것도 불사하겠다고 발표함.

개정
법령민원
사례

기타

Customs Focus

JOYANG
CUSTOMS
SERVICE CORP.



※ 자료 출처 : 관세무역정보, 관세청 홈페이지 (www.customs.go.kr) 등

